

# 전남도, 구제역 확산 방지 재난대책회의

### 사소한 의심증상도 신고토록 조치 등 강조

전남도는 영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18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발생 상황과 방역관리 현황, 백신접종 실적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암에서 3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모두 기존 방역 지역 3km 내 위치해 이미 지정됐던 방역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명장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위험지역 10km 내 농장은 모두 백신접종이

완료됐으나, 함께 형성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지역 내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하루 2번씩 집중 소독하고, 통제초소에서 빈틈없이 방역 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긴급상황인 만큼 신속히 백신접종을 마무리하고, 매일소독, 임상관찰,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특히 농가에서 사소한 의심증상도 신고토록 전담공무원을 통해 농가에 매일 알릴 것과, 구제역 조기 안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구제역은 18일 13시 기준 영암 7건, 무안 1건 총 8건이 발생했다. /염선호 기자

## 북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구정에 담는다

### 청년 주도형 참여기구 운영에 따른 청년 구정 참여 기회 확대 도모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년네트워크' 신규 위원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직접 발굴 및 제안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 처음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 중인 북구의 청년 참여기구이다.

북구는 제3기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이 3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뒤를 이을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총 14명의 신규 위원 모집에 나선다.

모집 기준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청년 중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북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자로 신청자의 직업, 나이, 활동 분야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네트워크 위원으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된 제4기 청년네트워크는 오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2년간의 임기 동안 ▲청년 정책 의견수렴 ▲모니터링 ▲청년 정책 발

굴 ▲구정 참여 방안 논의 등의 활동을 수시로 수행하고 9월 중 열리는 '청년주간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는 네트워크 정기 및 수시회의에 참석한 청년에게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임기 내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청년에게는 구청장 표창 수여 등의 특전을 제공하여 네트워크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네트워크에 속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은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식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chohuik@korea.kr)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062-410-8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 신규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다양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해주신 청년 친화 정책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북구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광주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

### 작년 하반기 이자 4월30일까지 신청... 전남지역 대학까지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2025년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4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광주광역시 대학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소재 대학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3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 광주 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062-613-3692)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 검토 및 대출금 조회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좌로 이자 지원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지역대학생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2024년 하반기까지 2만1653명에게 14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박도일 기자

## 동구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 4~12월, 입주민 간 갈등·내부 분쟁 등 해소 기대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면서 관리 주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분쟁 등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전문 상담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전 예방 차원의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신축 아파트 ▲반복적 갈등이 있는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단지

및 취약계층 거주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담센터에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상근) 1명, 주택관리사 2명, 회계사 1명, 변호사 2명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민원에 대해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안내 등 실무 상담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차 관리, 경비원 및 미화원 인사 문제 등 생활 속 갈등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 줄어들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서구, 상무2동에 ‘천원국시 9호점’ 개소

### 생활용품 무료 나눔, 업사이클링 체험장 운영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브랜드인 천원국시 9호점을 18일 상무2동(쌍촌로15번길 7)에 개소했다. 천원국시는 어린 일자리 창출과 나눔 문화 확산, 우리 밀 소비 촉진을 통해 ‘착한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서구 대표적인 정책으로 매달마다 하루 100그릇씩 어른

천원국시 9호점은 상무2동의 BI(Brand Identity) ‘나눔마을’을 반영해 ‘1년 365일 나눔하기 좋은 날, 365 나눔데이!’를 콘셉트로 정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국수 한 그릇당 1천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60세 이상 어르신과 법정저소득층,

임산부, 7세 미만 아동도 같은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구는 매장에 나눔냉장고를 두고 주민들이 기부한 식자재나 음식을 필요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커피 장작, 커피 탈취제 등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생활용품 무료 나눔과 업사이클링(upcycling) 체험장 운영 등 9호점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국시 9호점이 단순히 지역 주민을 위해 착한 나눔데이!”를 콘셉트로 정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국수 한 그릇당 1천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60세 이상 어르신과 법정저소득층,

/박석우 기자

## 광주 남구, 신중년 ‘지게차 운전사 양성’ 취업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2개 선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신중년 퇴직자를 지게차 운전사로 양성하고, 마을 어르신을 실버활동가로 키워 취업 성공까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남구는 18일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됐다”면서 “사업비 1억4,670만 원을 투입해 신중년 퇴직자 경력 재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과 공하나 협동조합과 손을 잡고 이달부터 사업 추진에 나선다.

먼저 신중년 퇴직자의 경력 재설계를 위한 사업은 관내 40~60세 주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와 전

남 장성에 대해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게차 운전사에 대한 공급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판단해서다.

남구는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신중년 퇴직자들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방침이다.

사업 참가자 모집은 3월 하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광주 지역 중장비 학원에서는 유통물류업 종사에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해 자격증을 취득한 신중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에 나선 방침이다.

마을형 실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는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12시간에 걸쳐 마을형 실버활동가 양성 기본교육과 현장실습에 나설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교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